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1. 10. 5 (화)

meritz Strategy Daily

전략 공감 2.0

Strategy Idea

실적시즌 패턴모델 3분기 프리뷰

오늘의 차트

브라질도 전력난, 원인은?

칼럼의 재해석

웨어러블 카메라, 아직 이른가?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퀀트

Analyst 강봉주
02. 6454-4903
bj.kang@meritz.co.kr

실적시즌 패턴모델 3분기 프리뷰 : 어닝 서프라이즈(쇼크) 발생 시 대응할 종목

- ✓ 2019년 5월 제시한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의 분기별 성과 리뷰 및 다음 분기 전략 제시
- ✓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발생시 초과수익폭 클 가능성 높은 종목 선별 제시
- ✓ 3분기 한국 업종별 이익 증가율, 전망치 추이, valuation 정리

2019년 5월 13일 보고서 '실적 시즌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서 실적 시즌 패턴 모델 제시, 분기별 모델 적용 성과 및 향후 분기에 대한 스크리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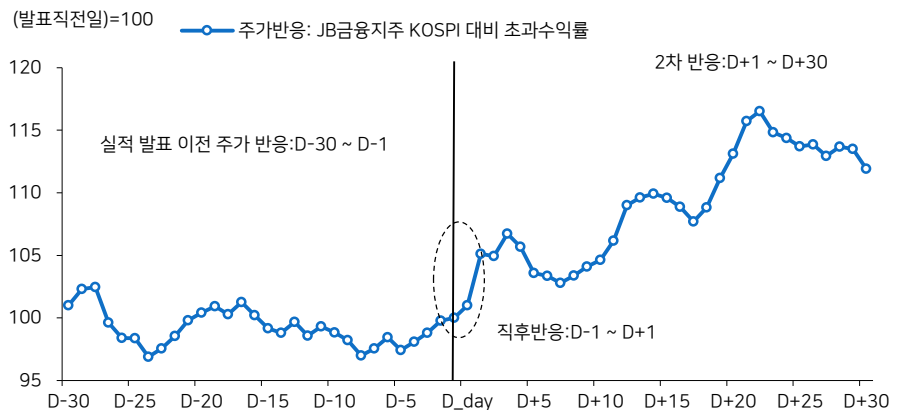
2분기 모델 성과는 2가지 모델 수익률 각각 -0.7%, 1.3%

메리츠 퀀트 어닝 서프라이즈(쇼크) 패턴모델 2Q 성과 : -0.7%, 1.3%

필자는 지난 2019년 5월13일자 보고서 '실적 시즌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통해 어닝 서프라이즈와 쇼크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투자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필자가 새로 정의한 주가 서프라이즈, 쇼크의 개념, 그리고 시가총액과 베타에 대한 주식 분류를 통해 어닝 서프라이즈(쇼크) 효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에 활용하는 내용이었다.

실적시즌 패턴모델의 지난 2021년 2분기 성과는 2개 모델 각각 -0.7%, 1.3%로 일부 소폭 부진, 일부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본 자료에서는 지난 2분기 모델 적용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다가오는 3분기 실적시즌을 대비한 예비 종목 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델의 주요 개념에 대한 요약 설명을 표1에 제시했다.

그림1 실적 발표 전후 주가 : 2분기 매수 종목, JB금융지주(어닝 서프라이즈 & 중형주 & 저베타)



주: KOSPI 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실적 발표일 전후 30거래일 주가 흐름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실적 시즌 패턴 모델 주요 개념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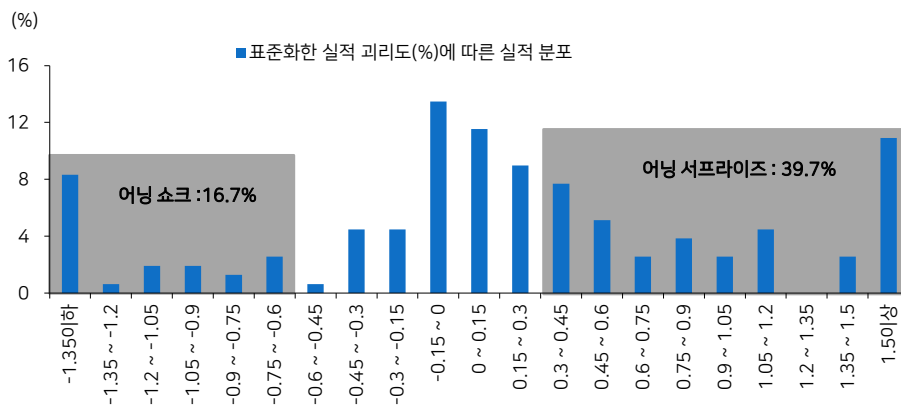
개념	설명
어닝 서프라이즈	순이익 기준으로 '(발표치 - 컨센서스)/시가총액' 이 0.3 이상인 종목
어닝 쇼크	순이익 기준으로 '(발표치 - 컨센서스)/시가총액' 이 -0.6 이하인 종목
주가 서프라이즈	실적발표 후 1차 반응 수익률이 3% 이상인 종목
주가 쇼크	실적발표 후 2차 반응 수익률이 3% 이상인 종목
유니버스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중 순이익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종목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형주	시가총액 101~200위 종목
고베타	유니버스 내 52주 베타 상위 100위 이내 종목
저베타	유니버스 내 52주 베타 101~200위 종목
시가총액 기준	해당 실적시즌 분기말 시가총액, ex) 2분기 : 6월30일 시가총액 기준
실적발표 후 1차 반응	(실적발표 전일 증가 ~ 실적발표 익일 증가 수익률)의 KOSPI 대비 초과수익률
실적발표 후 2차 반응	(실적발표 익일 증가 수익률 ~ 실적발표 30거래일 후 증가 수익률)의 KOSPI 대비 초과수익률
매수 전략1	어닝 서프라이즈와 주가 서프라이즈를 모두 보이는 종목을 실적발표 익일 증가에 매수
매도 전략1	어닝 쇼크와 주가 쇼크를 모두 보이는 종목을 실적발표 익일 증가에 매도(공매도)
매수 전략2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중 중형주, 저베타 종목을 실적발표 익일 증가에 매수
매도 전략2	어닝 쇼크 종목 중 대형주, 고베타 종목을 실적발표 익일 증가에 매도(공매도)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
종목 비중은 40%, 17%

지난 2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별 분포를 보자. 위의 표1에 따른 필자의 정의 방식상 어닝 서프라이즈와 쇼크 종목수는 각각 62개, 26개로 유니버스 내 비율로는 40%, 17%에 해당했다. 1분기 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감소했지만 통상적인 경우보다 발표 실적이 우수했다. 참고로, 최근 3분기 이익 전망치 하향 업종이 나오는 등 상반기에 비해서 실적 기대치는 낮아진 상황이다.

그림2 2021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별 분포 : (발표치 - 컨센서스)/(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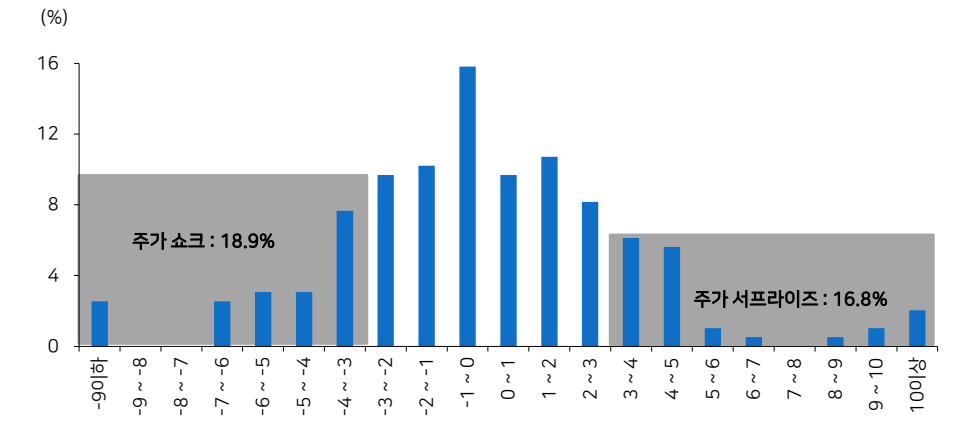


자료: E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2분기 주가 서프라이즈,
쇼크 종목 비중은 17%, 19%

이제 지난 2분기의 주가 서프라이즈, 쇼크 분포를 보자. 필자는 실적 발표 후 1차 반응 기간 동안 KOSPI 대비 초과수익률이 3% 이상이면 주가 서프라이즈, -3% 이하를 주가 쇼크로 정의한다. 1차 반응 기간 초과수익률은 실적발표일 전일 증가부터 실적발표 익일 증가까지의 초과수익률로 정한다. 주가 서프라이즈와 쇼크 종목수는 각각 33개, 37개로 유니버스 내 비율로는 17%, 19%에 해당했다.

그림3 2021년 2분기 주가 서프라이즈, 쇼크 분포 : 실적발표 후 1차 반응 초과수익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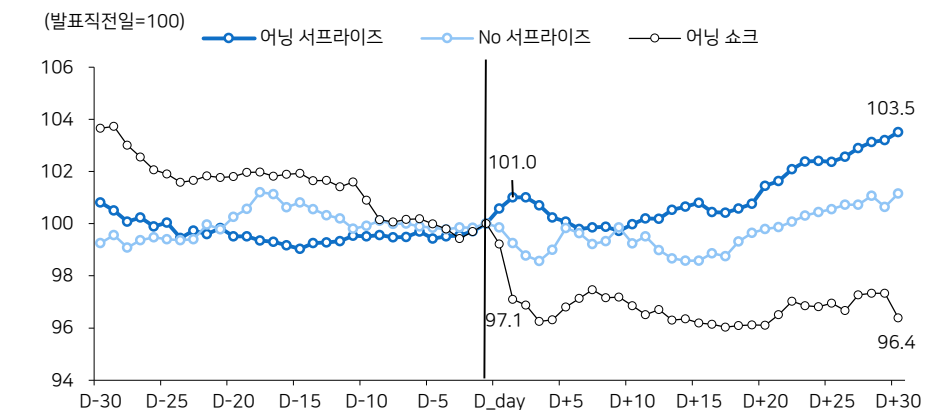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과 어닝 쇼크 종목의 2차
반응 수익률 차이가 3.2%로 높아

지난 2분기에 주식 세부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단순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의 수익률은 2차 반응 수익률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 2.5%, 어닝 쇼크 종목이 -0.7%로 수익률 차이가 3.2%였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의 실적 발표 이후 추가 상승폭이 높았던 편이다.

한편, 필자는 2차 반응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예상하기 위해 실적 발표 익일 증가매수를 가정하는 점을 상기하자. 실투자시에는 실적 발표 당일이나 익일 장중에 더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 매도 체결 시 투자 성과는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4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 전후 주가 흐름_2021년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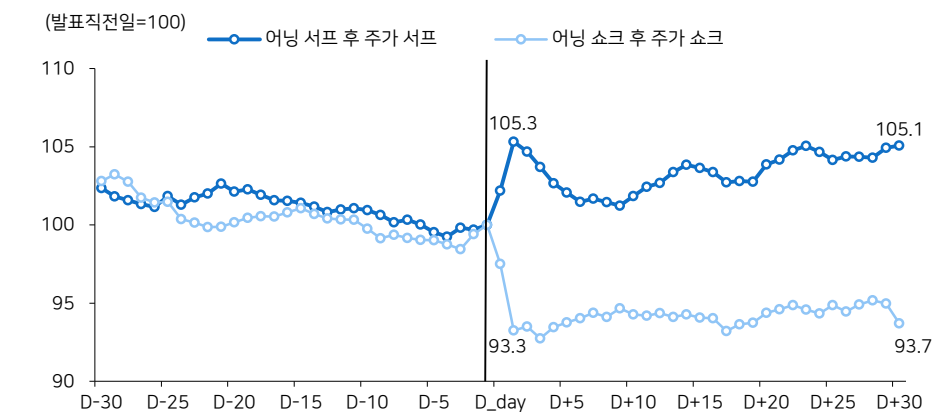
주: KOSPI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시즌 패턴 모델 1 결과 :
매수 -0.3%, 매도 0.4%로
롱숏 가정 시 -0.7%

이제 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쇼크) 매수, 매도 2가지 전략에 대한 2분기 성과를 체크해보자. 첫 번째 전략은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중 주가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종목을 매수하고, 어닝 쇼크 종목 중 주가 쇼크를 보이는 종목을 매도(공매도)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수익률은 -0.3%, 0.4%로 합산 기준으로는 -0.7%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익 전망의 주가 선반영으로 소폭 부진한 성과를 보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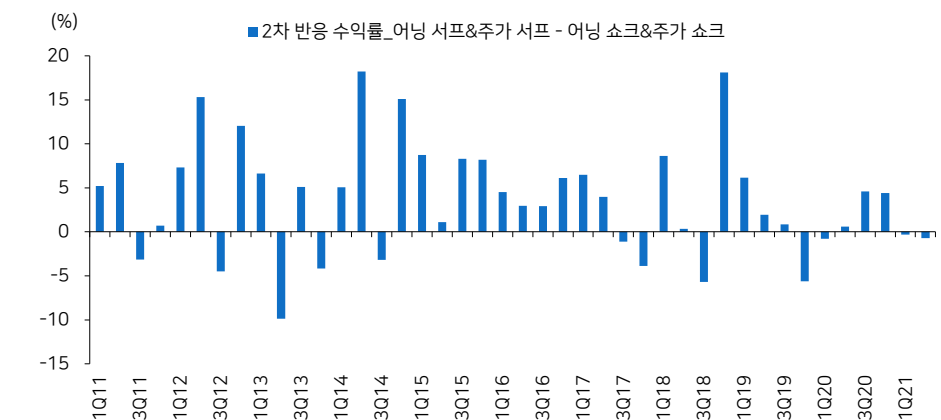
그림5 패턴1 : 어닝 서프라이즈(쇼크)와 주가 서프라이즈(쇼크)를 결합한 전략_2021년 2분기



주: KOSPI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전략1 과거 성과 : 2차 반응 수익률(어닝 서프&주가 서프 - 어닝 쇼크&주가 쇼크)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2021년 2분기 리뷰 : 매매 전략 1의 종목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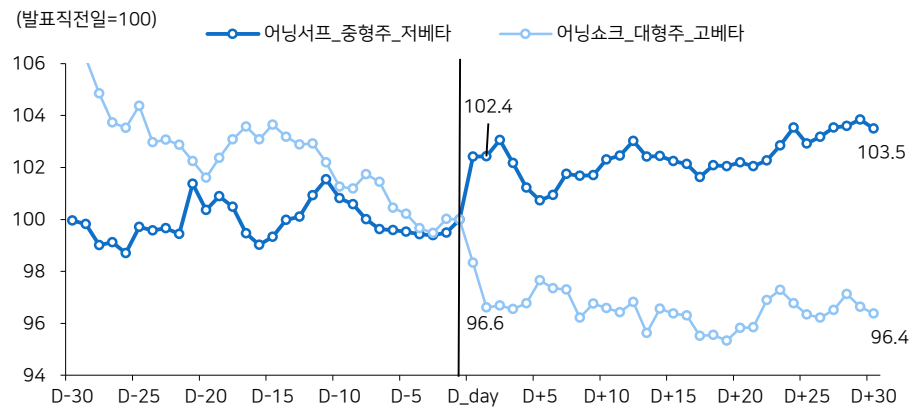
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주가 (원)	베타	순이익 컨센서스 (십억)	발표 순이익 (십억)	직후반응 (%p)	2차반응 (%p)	실적 발표일	2차반응 시작일
매수 유형 어닝 서프라이즈 후 주가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										
A035420	NAVER	63,734	388,000	0.85	320.6	527.7	4.4	1.8	2021-07-22	2021-07-26
A017670	SK텔레콤	23,347	324,000	0.74	526.5	765.8	4.4	4.4	2021-08-11	2021-08-13
A055550	신한지주	20,871	40,400	0.77	1,077.7	1,251.8	4.2	-0.6	2021-07-27	2021-07-29
A086790	하나금융지주	13,931	46,400	0.89	850.9	917.1	3.3	3.0	2021-07-22	2021-07-26
A010950	S-Oil	12,639	110,000	0.92	320.5	410.7	4.1	-0.1	2021-07-27	2021-07-29
A030200	KT	8,512	32,600	0.45	261.4	338.8	4.8	-4.2	2021-08-10	2021-08-12
A035250	강원랜드	6,129	28,650	0.63	-0.8	20.9	3.3	4.0	2021-08-10	2021-08-12
A086280	현대글로비스	6,244	166,500	1.23	169.5	214.1	3.3	-7.3	2021-07-23	2021-07-27
A000210	DL	1,666	75,900	1.09	106.1	449.9	3.1	-7.6	2021-07-29	2021-08-02
A004020	현대제철	6,319	47,350	1.34	279.8	335.2	3.3	1.9	2021-07-27	2021-07-29
A005940	NH투자증권	3,862	12,900	1.03	203.9	270.4	4.1	4.1	2021-07-22	2021-07-26
A036490	SK머티리얼즈	4,375	414,800	1.12	40.0	84.0	13.3	-5.6	2021-07-20	2021-07-22
A240810	원익IPS	1,966	40,050	1.10	50.1	76.0	4.1	-8.9	2021-08-06	2021-08-10
A000880	한화	2,953	34,250	1.17	155.5	243.9	3.1	16.6	2021-08-06	2021-08-10
A111770	영원무역	1,956	44,150	0.96	54.3	62.0	9.1	8.6	2021-08-13	2021-08-18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널	1,357	190,000	0.78	14.3	19.1	9.0	-2.1	2021-08-12	2021-08-17
A192820	코스맥스	1,413	124,500	0.63	23.9	32.0	11.3	-3.5	2021-08-11	2021-08-13
A175330	JB금융지주	1,759	8,930	0.48	123.6	146.0	5.1	6.8	2021-07-27	2021-07-29
A086900	메디톡스	994	158,900	0.24	3.5	31.7	3.9	-15.9	2021-08-13	2021-08-18
매도 유형 어닝 쇼크 후 주가 쇼크 기록한 종목										
A096770	SK이노베이션	24,706	265,000	1.66	452.1	186.8	-6.9	3.9	2021-08-04	2021-08-06
A066570	LG전자	21,996	127,500	1.18	489.1	-390.1	-4.3	-2.4	2021-07-07	2021-07-09
A000720	현대건설	5,741	51,400	0.91	108.1	46.4	-5.0	4.2	2021-07-23	2021-07-27
A000120	CJ대한통운	3,490	153,000	0.59	40.5	-51.8	-6.9	3.0	2021-08-06	2021-08-10
A042660	대우조선해양	2,886	26,900	1.14	-49.8	-1,012.2	-6.5	-2.1	2021-08-17	2021-08-19
A023530	롯데쇼핑	2,900	102,500	0.94	2.4	-62.3	-3.1	1.8	2021-08-06	2021-08-10
A078340	컴투스	1,271	98,800	0.90	35.1	11.6	-3.8	-5.6	2021-08-12	2021-08-17
A011200	HMM	13,662	33,700	1.00	450.9	210.5	-3.1	-9.6	2021-08-13	2021-08-18
A013890	지누스	1,168	73,900	0.59	21.6	8.3	-28.0	-0.5	2021-08-13	2021-08-18
A032350	롯데관광개발	1,455	21,000	0.61	-30.8	-44.3	-3.1	16.3	2021-08-13	2021-08-18
A071840	롯데하이마트	702	29,750	0.67	48.1	24.7	-3.6	-6.3	2021-08-05	2021-08-09

주: 시가총액과 주가는 2021년 9월 30일 기준이며, 2019년 5월 13일 보고서 'Bonjour Quant : 실적 시즌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종목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시즌 패턴 모델 2 결과 :
매수 1.1%, 매도 -0.2%로
롱숏 가정 시 1.3%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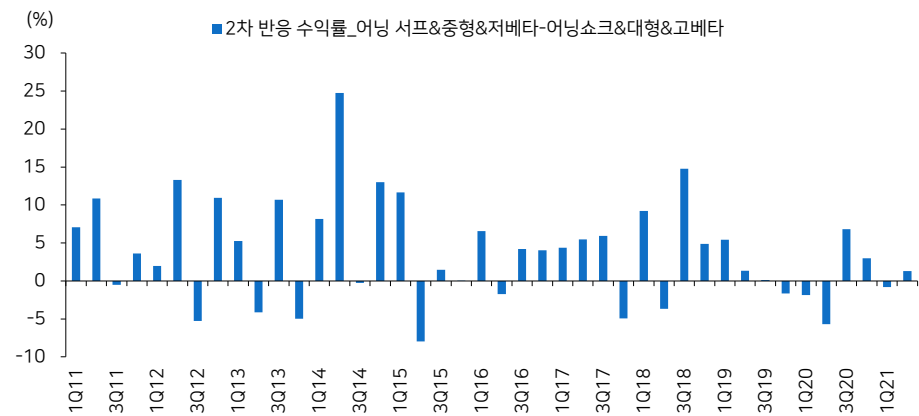
두번째 전략인 중형주, 저베타 종목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매수, 대형주, 고베타 종목이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종목을 매도(공매도)하는 전략은 각각 1.1%, -0.2%로 롱숏 기준 1.3%의 성과를 기록했다.

그림7 패턴2 : 어닝 서프라이즈_중형주&저베타 매수, 어닝 쇼크_대형주&고베타 매도_2분기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전략2 과거 성과 : 2차 반응 수익률(어닝 서프&중형&저베타 - 어닝 쇼크&대형&고베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2021년 2분기 리뷰 : 매매 전략 2의 종목별 결과

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주가 (원)	베타	순이익 컨센서스 (십억)	발표 순이익 (십억)	직후반응 (%p)	2차반응 (%p)	실적 발표일	2차반응 시작일
매수 유형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중 중형주, 저베타 종목										
A008560	메리츠증권	3,375	4,950	0.78	161.0	187.9	0.3	13.9	2021-07-29	2021-08-02
A047050	포스코인터내셔널	2,949	23,900	0.89	82.8	125.2	3.0	-4.5	2021-07-21	2021-07-23
A138930	BNK금융지주	2,881	8,840	0.53	201.6	275.3	2.1	4.6	2021-07-29	2021-08-02
A004800	효성	2,455	116,500	0.70	108.9	146.4	-5.0	5.7	2021-07-30	2021-08-03
A034230	파라다이스	1,605	17,650	0.58	-17.8	18.9	0.8	9.5	2021-08-11	2021-08-13
A001740	SK네트웍스	1,292	5,160	0.63	28.0	37.1	-6.1	-3.7	2021-08-02	2021-08-04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널	1,357	190,000	0.78	14.3	19.1	9.0	-2.1	2021-08-12	2021-08-17
A192820	코스맥스	1,413	124,500	0.63	23.9	32.0	11.3	-3.5	2021-08-11	2021-08-13
A175330	JB금융지주	1,759	8,930	0.48	123.6	146.0	5.1	6.8	2021-07-27	2021-07-29
A086900	메디톡스	994	158,900	0.24	3.5	31.7	3.9	-15.9	2021-08-13	2021-08-18
매도 유형 어닝 쇼크 종목 중 대형주, 고베타 종목										
A096770	SK이노베이션	24,706	265,000	1.66	452.1	186.8	-6.9	3.9	2021-08-04	2021-08-06
A066570	LG전자	21,996	127,500	1.18	489.1	-390.1	-4.3	-2.4	2021-07-07	2021-07-09
A009540	한국조선해양	7,219	102,000	1.05	-74.0	-628.8	4.4	-9.5	2021-07-21	2021-07-23
A000720	현대건설	5,741	51,400	0.91	108.1	46.4	-5.0	4.2	2021-07-23	2021-07-27
A042660	대우조선해양	2,886	26,900	1.14	-49.8	-1,012.2	-6.5	-2.1	2021-08-17	2021-08-19
A035760	CJ ENM	3,320	151,400	0.92	58.1	31.9	-2.3	-2.6	2021-08-05	2021-08-09
A023530	롯데쇼핑	2,900	102,500	0.94	2.4	-62.3	-3.1	1.8	2021-08-06	2021-08-10

주: 시가총액과 주가는 2021년 9월 30일 기준이며, 2019년 5월 13일 보고서 'Bonjour Quant : 실적 시즌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종목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Q 어닝 서프라이즈(쇼크) 발생 시 주가 변동 클 종목, 선별 대응 유리

실적 시즌 패턴 모델 2번을
사전적 스크리닝으로 활용 가능

필자가 제시하는 실적시즌 패턴모델은 발표된 실적을 확인 후 실적발표일 다음날 증가에 매수(매도)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런데, 필자의 두 모델 중 시가총액과 베타를 활용하는 모델은 실적발표 전에 매매 예비 리스트를 작성 가능하다. 중형주 이면서 저베타인 종목, 대형주이면서 고베타인 종목을 사전 선별하는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예민한 종목,
어닝 쇼크에 예민한 종목 리스트
제시, 어닝 서프라이즈(쇼크)에
대한 사전 투자도 가능

이는 실적발표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나 쇼크를 사전적으로 예상하는 액티브 매니저들에게도 유용한 종목 스크리닝이 될 수 있다. 아래의 종목 리스트들은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종목들에 비해 초과수익의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표4 매수 후보 :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시 Outperform 폭이 클 종목, 중형주 & 저베타 종목

코드	종목	시총 (십억)	주가	베타	3Q순익 전망치 (십억)	당사 전망치 (십억)	코드	종목	시총 (십억)	주가	베타	3Q순익 전망치 (십억)	당사 전망치 (십억)
A000060	메리츠화재	3,685	30,550	0.4	129	n/a	A192820	코스맥스	1,413	124,500	0.6	14	14
A008560	메리츠증권	3,375	4,950	0.7	167	n/a	A185750	종근당	1,377	120,500	0.8	25	n/a
A272210	한화시스템	3,306	17,500	0.8	21	n/a	A181710	NHN	1,373	70,200	0.5	22	n/a
A138930	BNK금융지주	2,881	8,840	0.4	221	n/a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널	1,357	190,000	0.7	19	19
A009240	한샘	2,824	120,000	0.6	22	n/a	A214150	클래시스	1,301	20,100	0.6	12	n/a
A058470	리노공업	2,686	176,200	0.7	24	n/a	A001740	SK네트웍스	1,281	5,160	0.6	22	n/a
A030000	제일기획	2,623	22,800	0.6	46	52	A078340	컴투스	1,271	98,800	0.9	23	21
A004170	신세계	2,594	263,500	0.7	46	n/a	A214320	이노션	1,208	60,400	0.4	20	18
A004800	효성	2,455	116,500	0.7	141	n/a	A013890	지누스	1,168	73,900	0.6	17	n/a
A004000	롯데정밀화학	2,353	91,200	0.8	91	n/a	A192080	더블유게임즈	1,158	63,000	0.6	36	n/a
A145020	휴젤	2,159	172,900	0.6	17	n/a	A003690	코리안리	1,151	9,560	0.2	40	n/a
A017800	현대엘리베이	2,006	49,150	0.7	29	26	A200130	콜마비엔에이치	1,033	34,950	0.8	19	n/a
A111770	영원무역	1,956	44,150	0.8	66	68	A086450	동국제약	1,027	23,100	0.8	19	n/a
A069960	현대백화점	1,870	79,900	0.8	42	39	A161890	한국콜마	1,018	44,500	0.6	12	19
A007310	오뚜기	1,807	492,000	0.4	30	n/a	A086900	메디톡스	994	158,900	0.6	5	n/a
A175330	JB금융지주	1,759	8,930	0.5	126	n/a	A001680	대상	842	24,300	0.7	33	14
A051600	한전KPS	1,728	38,400	0.3	38	n/a	A071840	롯데하이마트	702	29,750	0.6	47	50
A069620	대웅제약	1,686	145,500	0.9	13	n/a	A003230	삼양식품	615	81,700	0.5	12	n/a
A034230	파라다이스	1,605	17,650	0.6	-15	n/a	A009410	태영건설	451	11,600	0.7	35	n/a
A032350	롯데관광개발	1,455	21,000	0.8	-18	n/a							

주: 시가총액과 주가는 2021년 9월30일 기준이며, 종목 선정 기준은 전적으로 계량 분석 결과에 의한 것으로 당사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음영 표시된 종목은 3분기 순이익에 대한 당사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증시 컨센서스보다 5% 이상 높은 종목들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높은 종목임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5 매도 후보 : 3분기에 어닝 쇼크 기록 시 Underperform 폭이 클 종목, 대형주 & 고베타 종목

코드	종목	시총 (십억)	주가	베타	3Q순익 전망치 (십억)	당사 전망치 (십억)	코드	종목	시총 (십억)	주가	베타	3Q순익 전망치 (십억)	당사 전망치 (십억)
A005930	삼성전자	442,361	74,100	1.2	11,330	11,065	A018880	한온시스템	8,354	15,650	1.3	87	83
A000660	SK하이닉스	74,984	103,000	1.5	2,935	2,688	A011170	롯데케미칼	8,278	241,500	1.1	372	377
A035420	NAVER	63,734	388,000	1.0	375	482	A009540	한국조선해양	7,219	102,000	1.1	-19	-32
A051910	LG화학	54,780	776,000	1.1	788	806	A034220	LG디스플레이	6,781	18,950	1.0	441	n/a
A035720	카카오	52,509	118,000	1.0	265	246	A011790	SKC	6,400	169,000	1.0	62	83
A006400	삼성SDI	49,373	718,000	1.2	315	n/a	A004020	현대제철	6,319	47,350	1.3	425	508
A005380	현대차	42,734	200,000	1.4	1,493	1,558	A086280	현대글로비스	6,244	166,500	1.3	189	182
A068270	셀트리온	35,794	259,500	1.1	171	n/a	A011780	금호석유	5,758	189,000	1.1	458	n/a
A000270	기아	32,916	81,200	1.4	1,144	1,228	A000720	현대건설	5,724	51,400	1.0	114	117
A005490	POSCO	28,772	330,000	1.0	1,654	1,706	A006800	미래에셋증권	5,502	8,660	1.1	225	n/a
A096770	SK이노베이션	24,503	265,000	1.5	335	405	A16139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5,358	43,250	1.2	160	159
A012330	현대모비스	23,983	253,000	1.4	659	667	A011070	LG이노텍	4,935	208,500	1.2	176	n/a
A028260	삼성물산	23,081	123,500	1.0	343	338	A071050	한국금융지주	4,809	86,300	1.2	564	n/a
A066570	LG전자	20,865	127,500	1.4	817	n/a	A139480	이마트	4,586	164,500	0.9	137	114
A034730	SK	18,857	268,000	1.4	237	277	A016360	삼성증권	4,277	47,900	1.0	181	n/a
A091990	셀트리온헬스케어	16,959	109,400	1.5	93	n/a	A078930	GS	4,158	44,750	1.0	190	n/a
A003550	LG	14,629	93,000	1.1	639	n/a	A241560	두산밥캣	4,015	40,050	1.0	80	n/a
A086790	하나금융지주	13,931	46,400	0.9	852	861	A005940	NH투자증권	3,630	12,900	1.0	191	n/a
A003670	포스코케미칼	13,711	177,000	1.0	33	n/a	A096530	씨젠	3,170	60,700	1.4	105	n/a
A009150	삼성전기	13,258	177,500	1.2	285	n/a	A023530	롯데쇼핑	2,900	102,500	1.0	35	n/a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12,419	160,500	1.1	166	n/a	A042660	대우조선해양	2,886	26,900	1.1	-55	-94
A010950	S-Oil	12,384	110,000	0.9	301	352	A001040	CJ	2,883	98,800	1.0	99	n/a
A247540	에코프로비엠	10,236	467,000	1.1	27	n/a	A032500	케이엠더블유	1,599	40,150	1.0	5	n/a
A251270	넷마블	10,143	118,000	1.0	87	103	A000210	DL	1,591	75,900	1.1	85	n/a
A009830	한화솔루션	8,569	44,800	1.2	153	149							

주: 시가총액과 주가는 2021년 9월30일 기준이며, 종목 선정 기준은 전적으로 계량 분석 결과에 의한 것으로 당사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음영 표시된 종목은 3분기 순이익에 대한 당사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증시 컨센서스보다 5% 이상 낮은 종목들로 어닝 쇼크 가능성 높은 종목임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업종별 펀더멘탈 모니터

표6 업종별 Valuation

업종	PER (배)				PBR (배)			EV/EBITDA (배)			ROE (%)			배당수익률 Trailing (%)
	2020	2021	2022	12M Fwd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KOSPI	24.4	10.7	10.5	10.5	1.26	1.17	1.07	9.2	6.2	5.5	5.2	10.9	10.2	1.8
에너지	적자	12.5	10.8	11.1	1.23	1.19	1.10	303.4	7.9	7.4	(8.4)	9.5	10.2	1.0
화학	46.6	10.8	12.4	12.1	2.05	1.85	1.65	14.7	6.7	6.8	4.4	17.2	13.3	1.0
비철금속	18.1	9.2	9.8	9.7	1.06	1.02	0.95	7.9	5.2	5.0	5.8	11.1	9.7	1.9
철강	41.4	4.9	5.4	5.3	0.59	0.53	0.49	7.7	3.1	3.0	1.4	10.9	9.1	1.8
건설	10.3	7.3	7.1	7.1	1.00	0.92	0.83	7.2	5.0	4.0	9.7	12.6	11.7	1.7
기계	적자	11.5	11.3	11.3	1.41	1.12	1.03	14.7	7.0	6.2	(1.3)	9.8	9.1	0.5
조선	적자	적자	적자	적자	1.02	1.10	1.10	적자	적자	23.9	(9.5)	(14.2)	(0.7)	0.1
상사, 자본재	25.9	9.5	9.9	9.8	0.91	0.84	0.79	7.2	5.0	4.8	3.5	8.9	8.0	2.0
운송	적자	11.1	7.6	7.5	2.12	1.54	1.30	12.3	5.5	5.1	(2.7)	13.8	17.2	0.9
자동차	30.4	7.9	7.0	7.2	0.79	0.73	0.67	10.9	6.1	5.3	2.6	9.2	9.6	1.4
화장품, 의류	27.3	14.3	13.0	13.2	1.84	2.03	1.80	9.4	6.5	5.8	6.7	14.2	13.8	0.9
호텔, 레저	적자	적자	20.4	26.4	2.44	2.83	2.54	적자	49.2	10.0	(16.2)	(4.9)	12.5	0.1
미디어, 교육	적자	50.9	24.5	26.8	2.78	2.90	2.66	79.1	12.3	9.4	(11.6)	5.7	10.9	0.8
소매(유통)	적자	11.5	10.6	10.7	0.58	0.55	0.53	8.2	6.6	5.9	(0.1)	4.8	5.0	1.7
필수소비재	13.5	11.3	10.1	10.3	1.01	1.04	0.97	6.1	5.8	5.4	7.5	9.2	9.6	2.3
건강관리	71.5	44.6	48.4	47.8	6.22	6.82	6.08	38.3	28.7	30.3	8.7	15.3	12.6	0.2
은행	8.4	6.2	6.0	6.1	0.61	0.55	0.51	n/a	n/a	n/a	7.3	8.9	8.5	2.7
증권	6.0	4.1	5.0	4.8	0.66	0.63	0.57	n/a	n/a	n/a	11.1	15.3	11.5	3.7
보험	10.8	7.5	8.2	8.1	0.49	0.49	0.47	n/a	n/a	n/a	4.5	6.6	5.7	2.9
소프트웨어	50.0	9.1	27.6	20.6	5.10	3.25	2.93	18.9	22.7	16.7	10.2	35.7	10.6	0.3
IT하드웨어	31.4	12.3	11.0	11.2	1.96	1.79	1.56	9.1	6.0	5.1	6.2	14.5	14.2	0.6
반도체	16.6	10.4	8.9	9.1	1.60	1.47	1.31	5.8	4.2	3.6	9.6	14.1	14.7	3.6
IT가전	34.2	25.8	17.0	18.0	2.89	2.55	2.24	13.1	9.5	8.2	8.5	9.9	13.2	0.3
디스플레이	적자	4.6	6.1	5.7	0.63	0.51	0.47	4.5	2.1	2.0	(1.4)	11.2	7.8	0.0
통신서비스	14.8	8.9	8.1	8.2	0.86	0.80	0.75	4.2	3.9	3.7	5.8	9.0	9.2	3.2
유틸리티	11.2	적자	적자	적자	0.34	0.31	0.31	6.2	9.0	8.4	3.0	(1.5)	(0.5)	3.5

주: 2021년 10월 1일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7 업종별 Earnings_이익전망치 변화(분기)

업종	매출액 전망치 변화율 (%)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				순이익 전망치 변화율 (%)			
	3Q21		2021		3Q21		2021		3Q21		2021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KOSPI	0.5	3.4	0.3	2.2	1.6	6.7	0.3	4.9	1.2	8.0	0.2	5.1
에너지	(0.1)	7.7	(0.0)	5.9	0.3	15.8	(0.9)	12.1	(1.9)	24.9	(3.6)	9.6
화학	0.0	2.5	0.3	3.2	(0.8)	(4.4)	(0.1)	7.8	(0.1)	(0.7)	0.2	8.3
비철금속	0.7	7.4	0.2	6.4	(1.3)	12.0	(1.3)	13.1	(1.8)	9.3	(1.2)	21.1
철강	1.8	9.6	0.6	6.1	10.5	37.4	4.6	21.5	15.0	46.6	5.4	30.1
건설	0.5	0.5	0.1	(0.2)	1.5	2.1	0.3	1.2	5.6	(0.1)	1.2	13.2
기계	(0.3)	4.7	0.5	(8.8)	(0.8)	1.7	0.1	(17.9)	(1.3)	0.2	1.8	2.6
조선	(0.0)	1.3	(0.1)	(3.3)	적자지속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상사,자본재	1.0	5.0	0.6	3.4	3.0	10.4	2.0	11.3	(2.3)	2.0	5.7	22.0
운송	1.1	12.0	1.0	7.7	4.9	70.9	5.8	56.0	2.0	154.7	4.9	15.2
자동차	(0.7)	(0.1)	(0.2)	1.0	(1.6)	5.2	(0.4)	3.8	(1.6)	8.3	(0.3)	7.9
화장품,의류	(0.6)	0.1	(0.1)	1.4	(1.8)	1.0	(0.1)	3.7	(1.1)	1.7	0.8	6.2
호텔,레저	(0.3)	(0.3)	0.3	1.4	(13.1)	(53.9)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미디어,교육	1.1	1.8	0.7	0.7	(0.1)	3.3	(0.7)	(6.7)	(3.0)	(5.1)	0.1	(10.4)
소매(유통)	0.2	0.7	0.3	0.7	(1.2)	(1.4)	(1.6)	(6.3)	(1.9)	(3.9)	(0.6)	15.6
필수소비재	0.1	0.3	0.2	(0.2)	(0.9)	(3.4)	(0.2)	(2.7)	(0.9)	(1.8)	(0.8)	(2.9)
건강관리	(0.0)	(2.2)	0.5	(2.1)	0.0	(5.4)	0.4	(5.5)	0.0	(6.9)	(3.1)	(7.1)
은행	n/a	n/a	n/a	n/a	2.7	8.2	0.8	7.9	2.9	10.5	1.0	8.8
증권	n/a	n/a	n/a	n/a	0.0	17.8	0.5	12.0	0.0	21.8	0.9	15.6
보험	n/a	n/a	n/a	n/a	12.8	16.0	(0.1)	7.4	5.1	7.3	(1.9)	4.7
소프트웨어	(0.8)	(0.7)	(0.2)	0.6	(3.2)	(16.9)	(1.4)	(10.8)	(2.1)	(6.4)	(0.2)	2.1
IT하드웨어	2.6	9.9	0.8	3.1	5.3	17.9	2.3	8.5	1.8	6.5	2.9	12.2
반도체	1.4	4.2	0.6	3.4	1.8	6.9	0.1	5.0	0.7	3.8	0.0	3.1
IT가전	0.7	4.6	0.2	0.5	(1.6)	(0.1)	(1.5)	2.4	1.0	2.3	(7.6)	(20.2)
디스플레이	(1.0)	0.7	(0.6)	1.0	(4.9)	19.0	(2.4)	19.6	0.0	31.9	(3.2)	19.0
통신서비스	(0.0)	(0.2)	(0.0)	(0.4)	(0.0)	2.1	0.0	2.8	0.1	6.6	0.8	13.9
유틸리티	0.0	1.7	0.4	1.3	(20.3)	(75.4)	(39.2)	(91.1)	적자지속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표8 업종별 Earnings_이익 증가율

업종	매출액 증가율 (%)			영업이익 증가율 (%)			순이익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KOSPI	(3.6)	17.0	7.6	5.8	72.9	10.7	19.1	120.0	2.3
에너지	(27.8)	38.0	9.4	적자전환	흑자전환	4.6	적자전환	흑자전환	15.7
화학	(2.5)	39.4	9.1	17.9	224.6	(8.7)	122.4	378.4	(13.0)
비철금속	6.2	24.3	2.2	13.1	43.8	1.5	(1.7)	76.1	(6.9)
철강	(10.4)	26.1	4.3	(34.8)	296.2	(7.5)	(43.2)	642.5	(9.9)
건설	3.0	8.1	11.2	5.9	27.5	19.3	26.9	34.1	1.5
기계	(1.7)	3.3	7.7	13.8	22.5	13.0	369.7	128.5	1.9
조선	1.7	(4.5)	12.0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상사,자본재	(10.0)	15.5	3.5	(43.6)	162.7	7.2	(23.5)	163.8	(4.1)
운송	(16.2)	25.7	10.2	66.3	395.8	4.2	적자지속	흑자전환	49.1
자동차	(1.9)	16.0	6.8	(21.2)	126.1	13.4	(38.1)	201.1	12.9
화장품,의류	(6.0)	14.8	8.0	(15.5)	64.3	7.9	(11.7)	80.9	8.0
호텔,레저	(46.5)	20.1	43.0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미디어,교육	(18.6)	18.1	19.4	(75.9)	344.2	68.4	적자지속	흑자전환	107.6
소매(유통)	0.4	8.4	7.4	(23.5)	50.4	29.5	(97.4)	19,831.9	8.1
필수소비재	5.7	5.9	5.0	25.9	5.7	9.4	99.3	17.5	11.3
건강관리	25.7	23.0	5.2	100.5	80.7	(6.9)	155.1	63.4	(7.3)
은행	n/a	n/a	n/a	0.4	27.3	3.5	(0.2)	31.4	2.7
증권	n/a	n/a	n/a	34.3	40.4	(14.2)	23.4	44.7	(17.0)
보험	n/a	n/a	n/a	46.5	0.8	(10.9)	36.6	49.3	(9.3)
소프트웨어	15.3	20.4	19.0	28.7	9.3	42.9	61.3	491.2	(67.0)
IT하드웨어	14.2	21.0	7.5	15.3	71.4	13.8	14.4	118.1	11.7
반도체	4.6	19.1	10.4	34.7	60.1	15.6	31.4	58.4	17.3
IT가전	3.5	14.8	7.0	33.3	50.7	16.3	434.3	29.5	51.5
디스플레이	3.2	22.2	(2.5)	적자지속	흑자전환	(25.3)	적자지속	흑자전환	(24.6)
통신서비스	2.7	3.6	3.8	15.8	19.5	10.0	35.3	65.2	9.1
유틸리티	(6.0)	6.7	5.4	807.9	(97.0)	721.2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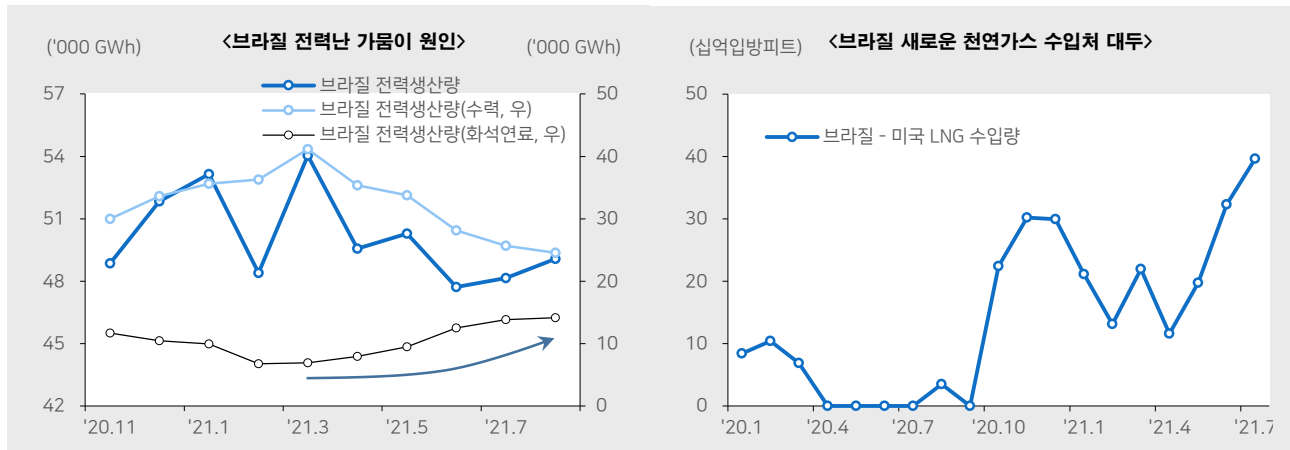
주: 2021년 10월 1일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이종빈 연구원

브라질도 전력난, 원인은?



자료: EIA, National Electric System Operato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브라질도 전력난,
원인은 가뭄 때문
수력발전 비중이 65%

유럽, 중국 뿐 아니라 브라질도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원인은 가뭄 때문이다. 브라질 중남부 일대가 9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 브라질의 전력생산량의 약 65%가 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가뭄으로 인한 강우량 감소가 농작물 경작에 어려움을 가하며 수력발전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
- 유럽과 동일한 양상

이는 유럽의 양상과 동일하다. 북유럽의 풍속 저하가 유럽 전력난을 불러왔듯 브라질도 기후변화가 전력생산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환경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브라질도 유럽과 같이 부족한 전력량을 화석연료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동안 거의 수입하지 않았던 미국 LNG를 올해 많이 수입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약 396억 입방피트를 수입해 그동안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시사점 1. 하반기 천연가스 수급
불확실성 확대

시사점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브라질을 선두로 남미가 새로운 천연가스 수요의 변수로 떠오름에 따라 하반기 천연가스 수급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 Petrobras는 부유식 LNG 수입 인프라 임대에는 등 본격적인 LNG 수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천연가스 수요국의 확장은 향후 에너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시사점 2. 원자력에 대한
관심 지속

두번째는 원자력이다. 이번 전력난으로 브라질의 원자력 증설 플랜이 앞당겨질 수 있다. 브라질 에너지 계획 PNE 2050에는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의 5배 이상 규모인 최대 10GW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브라질 에너지국 대변인이 2030년 계획(PDE 2030) 안에 원자력 발전 부지 선정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언급했다. 이번 전력난이 트리거로 작용한 것이다. 글로벌 전력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로 제시하는 해결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칼럼의 재해석

홍석현 연구원

웨어러블 카메라, 아직 이른가? (Financial Times)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출시를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2017년 애플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설립한 Humane은 가상 비서가 제어하는 카메라를 통해 "웨어러블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컨셉의 제품을 준비 중이다. 마치 Alexa에게 눈이 있고 Siri가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5G 네트워크와 블루투스에 연결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인공지능을 사용 가능하며 특허에 명시된 바로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중요한 순간순간을 캡처해 클라우드로 전송해 저장시킨다. 또는 착용자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보면 가상 비서가 헤드폰을 통해 답을 속삭여 준다.

온디바이스 AI 프로세서와 저전력 무선칩과 같은 현재 개발된 기술들로 웨어러블 카메라 제품을 생산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카메라를 만들려는 이전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제품의 출시 적기가 중요하다. 배터리와 카메라 기술력 부족으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구글 글래스와 Snapchat의 Spectacles은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들 직면해야만 했다.

Humane가 준비하는 웨어러블 글래스와 가장 유사했던 제품은 과거 2014년에 나온 Narrative Clip이다. 하지만 Narrative Clip은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제품의 크기와 카메라 해상도 등이 기술력에서 부족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찍힌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표하고 단순히 30초마다 찍힌 사진들은 생각보다 효용가치가 없었다.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로 증강현실(AR)을 위한 웨어러블 카메라 출시가 본격화 되고 있다. 웨어러블 카메라 기술 공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개인정보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알맞은 시기에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Humane의 앞으로의 행보는 눈 여겨 지켜봐야 한다.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하는 Humane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말이 있다: "Being early is the same as being wrong."

최초의 전기 자동차는 Tesla보다 1세기 이전에 먼저 존재했다. Palm Pilot이 현재의 아이폰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터치 스크린의 기술은 준비되어있지 않았다. Webvan은 식료품 배달 서비스로 지금의 Instacart, Ocado 그리고 Getir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닷컴 버블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또한 Facebook과 같은 Friends Reunited와 SixDegrees 같은 앱이 먼저 있었지만 디지털 카메라와 온라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발생하기 전에 존재했었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출시를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2017년 애플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창업하고 현재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한 샌프란시스코의 신생 기업 Humane은 기존 자신들이 회사 애플의 아이폰을 뛰어넘을 제품을 구상 중이다. Humane은 사용자들이 아이폰 구부정하게 빠져있지 않고 이제는 스크린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기업이다. 아직까진 Humane의 첫 제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등록한 특허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단서는 찾을 수 있다. Humane은 가상 비서가 제어하는 카메라를 통해 "웨어러블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컨셉의 제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마치 Alexa에게 눈이 있고 Siri가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림1 영화 Her에 나오는 웨어러블 기기 Samantha



자료: 영화 'H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Humane 창립자 Imran Chaudhri와 Bethany Bongiorno



자료: Human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Humane은 2013년 영화 Her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셔츠에 카메라를 장착하는 제품을 구상 중이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5G 네트워크와 블루투스에 연결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인공지능을 사용 가능하며 특허에 명시된 바로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중요한 순간순간을 캡처해 클라우드로 전송해 저장시킨다. 또는 착용자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보면 가상 비서가 헤드폰을 통해 답을 속삭여 준다.

물론 여타 다른 특허들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은 단순 개념으로 남을 수 있다. Humane 측에서는 특허 내용을 두고 회사측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존재하며 그 아이디어가 추후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동 설립자인 Imran Chaudhri는 이미 그의 이름으로 수백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앱 아이콘 그리드, pinch-to-zoom과 같은 터치스크린 기술,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와 같은 아이폰의 기본 디자인 작업과 연관된 기술들이다.

온디바이스 AI 프로세서와 저전력 무선칩과 같은 현재 개발된 기술들로 웨어러블 카메라 제품을 생산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카메라를 만들려는 이전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제품의 출시 적기가 중요하다. 배터리와 카메라 기술력 부족으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구글 글래스와 Snapchat의 Spectacles은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들 직면해야만 했다.

그림3 구글 글래스의 Enterprise Edition 2 제품



자료: Glas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30초마다 사진 찍는 웨어러블 카메라 Narrative Clip



자료: Narrative Clip,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Humane가 준비하는 웨어러블 글래스와 가장 유사했던 제품은 과거 2014년에 나온 Narrative Clip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된 회사는 버튼 모형의 카메라로 매 30초마다의 사진을 찍어 저장했다. 하지만 Narrative Clip은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제품의 크기와 카메라 해상도 등이 기술력에서 부족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찍힌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표하고 단순히 30초마다 찍힌 사진들은 생각보다 효용가치가 없었다.

Humane은 이러한 Narrative Clip의 단점들을 기술적으로 뛰어넘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지 인식 기술이 탑재되어있다면 애플이 현재 개인 정보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 업체들은 지속 웨어러블 카메라를 대중이 착용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패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너무 이른 타이밍이 문제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로 증강현실(AR)을 위한 웨어러블 카메라 출시가 본격화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구글 글래스와 Snapchat의 Spectacles 말고도 애플 글래스, 삼성 AR글래스,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 등이 발표되고 특허를 신청하고 있다. 웨어러블 카메라 기술 공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개인정보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알맞은 시기에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Humane의 앞으로의 행보는 눈 여겨 지켜봐야 한다.

원문: *Is it still too soon for wearable cameras? - Financial Times*